



이번 성경통독은 2025-26년 2year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월-토요일까지 매일 2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읽는 성경마다 해설, 적용과 기도로 묵상을 돕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2년동안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세요.
한걸음 한걸음 주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2025-2026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Week 1

Day 1

창세기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출애굽을 하고 난 후 모세로부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 달, 별, 동물, 강과 같은 애굽의 우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모든 피조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배우게 됩니다. 1장에 기록된 창조와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는 반복되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반영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창밖에 보이는 자연들, 우리 자녀들, 또한 나 자신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2장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주신 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제공해주신 최상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2025년 저희의 가정, 교회, 삶의 자리가 처음 에덴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Day 2

창세기 3장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에덴동산에서의 삶을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들과 행복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고(하나님처럼 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이며, 죄를 짓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24절)

창세기 4장

본장은 3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죄를 짓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2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 1) 일부 다처제의 시작(19절) :
- 2) 살인 (23절):

Day 3

창세기 5장

5장은 아담 자손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죽었더라'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죽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죄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릴레이 가운데서도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어진 ()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24절).

창세기 6장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근심하시며 한탄하십니다(5-7절). 범죄한 세대를 향한 심판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8절)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9절)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삶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노아처럼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Day 4

창세기 7장

7장은 홍수 심판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을 내가 보았느니라”(1절)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만이 방주에 들어갈 조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 하였습니다(5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의로운 신앙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젠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안착할 곳, 그곳에 도착할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흔들리는 방주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창세기 8장

홍수 심판의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하사'라는 표현입니다 (1절).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홍수가 그치고 물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끝나지 않을 홍수처럼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줄을 믿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였듯이,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